

코로나 시국에도 제멋대로인 국제학교

교육청, 재학생 코로나19 확진에 원격수업 권고 국제학교 4곳중 2곳 권고 따르지 않고 등교수업

제주 국제학교 4개교 중 2개교가 제주도교육청의 '원격수업'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영어교육도시 소재 한 국제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도교육청은 국제학교 4개교는 2주, 대정을 관내 12개교(유4·초4·중2·고2)는 4일간 원격

수업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와 브랜섬홀 아시아는 등교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오후 국제학교 교장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원격수업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국제학교는 학사 과정이 공

교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등교수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이석문 교육감도 23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 다행이지만 긴장을 풀 상황은 아니"라면서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 국제학교 2개교도 원격수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013년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에 '성

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됐지만,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는 올해 5월 27일에야 시행돼 '치외법권'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법적 관계 때문에 국제학교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 제주지방기상청 을 겨울 기상 전망 발표 춥고 때때로 폭설... 강수량 평년 수준

을 겨울 제주지역은 지난 겨울보다 춥고 때때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

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 겨울철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제주지역은 대륙·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평균 기온이 평년(30년 평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겨울 제주지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2℃ 높았다.

올 겨울 기상 예측을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12월 평균 기온은 평년(8.3~9.1℃)과 비슷하거나 낮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27.2mm~61.7mm로 예상됐다.

내년 1월도 평균 기온(5.8~6.8℃)과 강수량(46.3~69mm)이 평년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겨울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간간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때때로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2월에는 찬 공기 세력이 차차 약화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지만, 일시적인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평년 평균기온은 6.5~7.7℃ 분포를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여름철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특이한 기압계가 발생할 수 있어 북극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면서 "기압계가 크게 변화할 경우 수정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늦가을에 즐기는 봄 분위기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기온이 푹 떨어진 23일 서귀포시 성음마을 진입로의 유채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제주의 늦가을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유원시설업 안전실태 점검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유원시설업 43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안전보건진흥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여부를 포함해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검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유원시설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사항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안전 점검에서는 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12곳, 안전점검 표지판 미게시 4곳, 피난 안내도 미게첨 2곳 등이 적발됐다. 이상민기자

“4·3 배보상 국정과제 즉각 이행하라”

재경 4·3유족회 등 어제 정부총합청사앞 기자회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무성 의한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해 공개 사과와 조속한 국정과제 이행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제주4·3법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재경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총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주4·3특별법에 배·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여년 만에 제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진전이 없다”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사항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제72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이던 2019년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7일과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벌였지만 배·보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유보적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출발인 제주4·3의 배·보상에 첫발을 떼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수차례 공언과 정책 기조는 빛이 바래고 공염불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부미현기자

화단형? 철재 가드레일형?... 대략난감

평화로 중앙분리대 넘어가는 사망사고 잇따라... 도 “대책 강구할 것”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평화로에서 이달 들어 주행 중이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경계석 높이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철재 중앙분리대로 교체하는 사업은 수년째 멈춰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53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어음1리 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가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대형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해 두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초에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7시50분쯤 어음1리 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스타렉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두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와 부딪힌 트럭 운전자가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로·번영로·애조로 등 차량이 속도를 내는 주요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등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운전자 개인이 과속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운전요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

지만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에 조금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6년 제주도는 화단 연석을 들이받거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화로 약 16km 구간에 대해 기존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철재 가드레일을 보강하는 공사에 착수, 일부 구간에 대해 교체 완료했다. 현재는 미관저해·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수년째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찰 측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고가 잦은 구간에 대해 철재 가드레일로 교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8대 선거직임원 당선자 공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제8대 선거직임원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회장 당선자
김기량

부회장 당선자
조상철 양우석 김병진 이재경

감사 당선자
황영배 안필진 곽혁수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만균
위원 문승환, 김윤태, 강덕찬, 김성익, 홍수복, 좌방헌
간사: 양현철

축 CONGRATULATIONS 受 賞
풀잎文學賞

姜 研 益
姜研益詩人님께서
제17회 풀잎文學賞 大賞 受賞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앞으로 健筆과
더 큰 榮光이 함께 하시길 祈願합니다.

진주강씨 석자봉자 구업문중회

축 CONGRATULATIONS 개 업
건축사사무소 온도

건축사 김현정
(부: 김승만 · 모: 문애자)
건축사사무소 온도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형제자매일동
(김승호, 승희, 연수, 정인, 봉희)